

“2호선 시대 대비 역량 키우고 싶다”

나인호 광주도시철도공사 과장

차량유지 보수 베테랑 차량정비 기능장 취득 공사 내 학습동아리 지원 동료들과 공부 결실

“광주도시철도를 명품 지하철로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달 초 철도차량정비 기능장을 취득한 광주도시철도공사 나인호 과장(47)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동료들과 함께는 도전이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과장은 차량 유지 보수업무를 16년째 맡아 온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토막토막으로 알고 있던 지식을 큰 목표 아래 알차게 묶고 싶다는 생각에 철도차량정비 기능장에 도전했다.

철도차량정비 기능장은 안전한 철도 운행과 성능 향상을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인력을 가려내는 자격증이다.

철도차량공학 등 필기시험과 철도차량정비, 검사 실무 등 실무능력까지 평가 받는다.

나 과장은 “공사 내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뜻 맞는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니 합격의 길이 보이네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나 과장은 용산차량기지에서 전동차 경정비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전동차가 영업운행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면 장치별 기기와 부품의 기능을 점검해 마모되거나 손상된 상태 변화 등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조정하고 교환해 작업 전동차가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나 과장의 임무다.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점검이라고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큰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빠른 완치가 가능하듯이 꼼꼼한 검사야말로 큰 사고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동차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



는 나 과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나 과장은 이 중에서도 출고와 입고 점검과 7일마다 하는 일상검사를 전담하고 있다. 그는 전동차 정비를 ‘기술력의 집합체’ 라고 표현한다.

전기·전자·통신·신호 등 모든 영역을 알아야만 최첨단 교통수단인 전동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나 과장은 광주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학에서 배운 기계와 자

동차 공학 전공을 살려 2003년 공채 1기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주변에서는 “동기 중 가장 먼저 과장 진급을 할 정도로 업무역량에서도 인정 받는 직원”이라며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는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실력 향상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높여 노력하는 것도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임무 중 하나라는 것이 나 과장의 신념이다.

그는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야근 후 야침에 퇴근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집 근처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사이에 끼어있다가 보니 그들의 에너지가 전가되듯이 더 집중도 잘 되고 목표도 되게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나 과장은 “다가올 2호선 시대 등에 대비해 역량을 더욱 키우고 싶다”며 “이번 철도차량정비 기능장 취득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고 차원 높은 수준의 전문능력을 길러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알리는 광주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고 말했다.



광산구 도시재생 전략 워크숍
광산구가 주최하고 (사)상생나무가 주관한 민선 7기 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산구 도시재생 전략 워크숍’이 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북구장애인복지회 가을 나들이
(사)광주시북구장애인복지회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설비운영부)의 후원으로 ‘2018 장성 황룡강 노란 꽃 잔치’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태풍 ‘콩레이’ 피해 성금 전남농협 답지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한 전국 농협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농협충남본부는 이날 8층 전남본부장실에서 태풍 ‘콩레이’ 피해 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충남농협 조소행 본부장과 이주선 이사가 전남농협을 방문해 전남농협 박태선 본부장, 나용석 이사, 김재명 감

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박태선 본부장은 “올 한해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등 각종 농업재해로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번 충남농협의 성금은 전남 농업인들의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농협은 지난 11일 전남농협에 태풍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기영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245회 정례회에서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벨리 사업(광주역 일대)’과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구 경계 조정

등 광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최기영 의원은 “과거 경제 중심이었던 광주역 일대의 재생 사업과 광주 내 인구 변동으로 인한 자치구 조정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이 곧 시작된다”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두루 살피며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선의 선택과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활동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창교 일원에서 ‘서창동별 역사축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담양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

담양군은 최근 담양동초등학교 및 중앙공원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3회 비만예방의 날(매년 10월 11일)을 기념해 ‘소소한 실천 확실한 변화’, ‘비만은 질병, 건강은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비만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건강증진 홍보와 함께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영양소 알기 체험과 체지방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조기 건강생활 실천을 위

한 흡연 및 음주예방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했다.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담양군의 비만율은 28.3%로 전국 평균과 동일하나,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42.2%로 전국 57.8%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소는 그동안 아동 비만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담양동초등학교 외 4개교에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16주간 진행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6개월째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선포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전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선포식을 통해 ▲고유사업의 공공성 강화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환경·인권중심 경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동력 확보 등 4개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12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원은 선포식에 앞서 문화·

관람분야 5개 공공기관의 노사가 함께 참여해 공동과제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날 선포식을 통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밝힘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실천 과제를 바탕으로 문화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창제작 IP 및 기술성과를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고유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구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광주 남구는 최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11개 보훈단체 회원 및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2018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남구의회 환경정화 캠페인
광주 남구의회는 15일 오전 푸른길 공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